

수소 · UAM · 우주산업 관련 주간정책 동향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중앙	□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 범부처 의료기기 R&D, 예타 대상 선정(2024-11-28) -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 사업이 국가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 이 사업은 세계 최초로 분광 수소 유동 환원로 기반 30만t급 수소환원제철을 실증하는 프로젝트로, 총사업비 8849억6000만원 규모 - 산업통상자원부는 5년간 국고 3386억5000만원, 민자 5463억1000만원을 투입해 철강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 기존 고로 공정 대신 분철광석과 수소 환원제를 활용하는 혁신적인 방식 도입 -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 등이 협업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 8년간 총 1조4197억5000만원을 투입해 의료기기 해외 의존도를 낮출 계획
	지방	□ 창원특례시, 2024 국제수소전기에너지 전시회 27일 개막(2024-11-28) - 창원특례시가 주최하는 2024 국제수소전기에너지 전시회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하여 국내 대표 에너지 전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약 30개사가 참가하는 이번 전시회는 수소 · 전기 · 에너지 기술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산업 전시회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홍보관도 함께 운영 - 전시회와 연계하여 '창원 수소에너지 글로벌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특허청, 에너지경제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등 주요 유관기관과 주한 콜롬비아 대사 등이 참석해 수소 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 - 둘째 날에는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가 주관하는 세미나가 진행되어 한국의 수소 경제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주한 칠레 대사관 관계자들이 칠레의 친환경 수소 정책 및 한국 파트너를 위한 투자 유치 방안을 소개하는 등 실질적인 국제 협력의 장을 마련 □ 수소경제의 문을 열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작하는 청정에너지 전환(2024-11-28) - 전세계적인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전북특별자치도가 청정에너지원인 수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 수소는 탄소 배출 없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1kg의 수소가 휘발유 3.8리터에 해당하는 33.6kWh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보유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지방	- 전북자치도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수소 상용차 생산기지, 일진하이솔루스의 수소저장용기 생산, 두산퓨얼셀의 수소연료전지 기술 등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우수한 산업 기반을 보유. 또한 아헤스와 같은 수전해 분야 유망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 - 완주군에 조성 예정인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산업기반 집적화를 추진중이며, 기업 수용면적의 123%에 달하는 139개 기업이 입주의향을 표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향후 연구·검사·인증 인프라 보강과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할 계획
		□ 당진에 국내 첫 '청정수소 발전소' 들어선다(2024-11-28) - 충남 당진시에 국내 최초로 청정수소만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수소 전소 발전 단지가 들어설 예정. 당진 그린 에너지 허브는 송산면 가곡리에 43만6400㎡ 규모로 건설되며, 총 4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 900MW급 수소 전소 발전소 3기, 300MW급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3기, 데이터센터 등으로 구성되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완공될 예정. 이는 기존 LNG 복합발전 대비 연간 1000만톤의 탄소 배출량 감축 효과가 예상 - 충남도는 이 사업이 수소경제와 디지털경제를 선도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AI 산업 발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특히 도내 석탄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따른 대안으로서의 의미도 가짐
		□ 당진시, 수소전기 노면 청소차 오성환 시장 직접 시연(2024-11-28) - 당진시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전기 노면 청소차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 오성환 당진시장의 직접 수소전기 노면 청소차를 운전하며 새로운 장비의 성능을 시민들에게 선보임 - 수소전기 노면 청소차는 탄소 배출이 전혀 없고 소음도 현저히 적어 친환경적이고 조용한 청소 작업이 가능. 특히 운행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현저히 줄어 시민 건강과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당진시는 향후 수소전기 청소차의 운영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깨끗하고 살기 좋은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만들어갈 계획. 이는 당진시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실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 울산시, 전국 첫 수소차 안전인증센터 설계 착수...2028년 준공(2024-11-28) -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 용역에 착수. 북구 이화일반산단 일원에 지상 1층, 2개 동, 연면적 4340㎡ 규모로 건설되며 총 사업비 468억원이 투입될 예정 - 센터에는 전자과 시험실, 동력성능 시험실, 수소 노출 시험실, 연료전지 시험실 등 첨단 시설이 들어설 계획. 2026년 4월 공사를 시작해 2028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 - 수소전기차의 자기인증적합조사와 제작결합조사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지난해 7월 문을 연 수소전기차 검사소와 함께 수소전기차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반 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전망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지방	□ 원자력수소 산단 성공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2024-11-28) - 울진군이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서울에서 이틀간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 울진군수와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여해 국가산단의 추진 전략과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가짐 - 첫째 날에는 국가산단 내 입주 예정 대기업의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둘째 날에는 박형수 국회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간담회가 개최 - 정책간담회에서는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활성화 방안'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성공적 조성을 위한 원전전력 공급 해법'을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울진이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및 대한민국 청정수소 생산의 중심이 되기 위한 방안을 논의
		□ "내수 살리기" 경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지역투자펀드' 4호 선정(2024-11-28) -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4호 프로젝트로 선정. 총 사업비 7716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로, 정부가 투자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 -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가 2028년 3월 준공 예정인 이 발전소는 국내 최대 108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로, 4인 기준 약 27만 가구에 1년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 - 이 사업을 통해 건설기간 1200명의 고용효과, 733억원의 법인세 수입, 104억원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등이 예상되며,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등 연계 산업에 대한 투자수요도 촉진할 것으로 전망
		□ 대구 서부하수처리장내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착수(2024-11-28) - 대구시의 서부하수처리장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이 전력거래소의 '2024년 일반수소발전시장 경쟁입찰'에 선정되어 최종 계약 체결. 한국수력원자력, HS화성 등이 SPC사업자로 참여하는 이 사업은 총 1100억원이 투자될 예정 - 공공시설관리공단 서부사업소 유희부지 3700㎡에 19.8MW 설비용량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구축되며, 2025년 3월 착공, 2026년 7월 준공 예정. 연간 15만MWh의 전력을 생산해 4만 5천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계획 - 이 사업은 지역 전력자립률 제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증대, 성서산업단지 전력 공급, 지역 난방비 저감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됨. 특히 주변 지역 발전 지원금으로 기본 0.3억 원/년, 특별 16.5억 원/1회가 지원될 예정
		□ "삼척시 수소산업 중심 활력도시 구현"(2024-11-29) - 박상수 삼척시장이 2025년도 시정철학을 '호시우보(虎視牛步)'로 정하고,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 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활력도시 구현을 목표로 제시 - 신성장 산업발굴, 광역교통망 확충, 골드시티 조성, 폐광지역 활성화, 천만 관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지방	광도시 조성, 찾아가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전체 예산의 25%를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편성 - 특히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ESS화재안전실증 플랫폼 구축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계획. 또한 중입자가속기 의료기반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통한 경제활성화도 추진
		□ 고양특례시, 친환경 수소에너지 선도 도시 시동(2024-11-29) - 고양특례시가 고봉동 주민대표, 서울도시가스, 고양그린에너지와 고양설문 연료전지 발전시설 설치 및 주변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발전용량 9.9메가와트(MW)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는 약 1만8000세대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 발전 원료인 수소를 도시가스에서 추출해 사용하기 때문에 약 100세대가 도시가스 혜택을 받게 될 예정 - 20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며, 시는 수소차 구매지원과 수소충전소, 수소생산시설,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 장호종 대전부시장, 에너지기술연 방문...이차전지·수소 육성 논의(2024-11-29) - 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이 대덕특구 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방문해 이차전지 및 수소 등 신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 대전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구축과 국가 수소중점연구실 연계 기술개발 등을 협의 - 에너지기술연의 이창근 원장은 미래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을 위한 시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필요성을 제안. 장 부시장은 대덕특구의 과학기술을 지역 산업과 연결해 대전의 경쟁력을 높일 것을 강조 - 간담회 후 차세대 이차전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 그린수소 생산기술 등의 주요 시설을 점검. 대전시는 앞으로도 대덕특구의 정부 출연연을 지속 방문하고 협력을 확대할 계획
		□ '성남 2호 수소충전소'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에 내년 2월께 오픈(2024-12-01) - 성남시 사송동 버스공영차고지에 2천831㎡ 규모의 액화수소 충전소가 내년 2월 준공 예정. SK E&S에스케이폴러그하이버스가 환경부에 제안한 이 사업은 총 110억원(국비 70억·민간 40억) 규모 - 버스 기준 하루 12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4대가 설치되며 일반 승용차도 이용 가능. 이는 2021년 10월 문을 연 갈현동에 이어 성남 두 번째 수소충전소 - 성남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수소차 120대 구매 시 대당 3천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소승용차 450대와 수소 고상버스 3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
		□ 충북도,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 성과교류회' 개최(2024-12-01) - 충북도가 청주 S컨벤션에서 24년도 예비수소전문기업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자방	추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성과교류회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수소연합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 - 충북은 전국 유일하게 22년부터 3년 연속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 추진 지자체로 선정. 시제품 제작, 인증획득, 지식재산권 분야 등 총 32건을 지원 - 지난달 30일에는 한국수소연합, 전북도, 전남도, 경남도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소기업 육성 생태계 강화를 약속. 이를 통해 2025년도에도 수소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여 수소산업을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계획
		□ 체코·칠레·케냐 대표단, 창원시 '원전·수소·환경정책' 교류(2024-12-02) - 유럽(체코), 남미(칠레), 아프리카(케냐)의 각국 대표단이 같은 날 창원시청과 지역 기업을 방문해 원전, 수소, 환경정책 교류·협력을 논의. 칠레대표단은 양국 간의 수소 에너지 산업 및 문화교류 방안을 협의 - 체코대표단은 한-체코 미래포럼과 창원시가 공동으로 체코 원전 수출을 민간 외교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협의. 지난 10월 홍남표 시장이 체코 현지 두산스코다파워를 방문해 체코 원전 수출에 창원 기업들의 참여방안을 논의 - 케냐 환경부 차관 등 케냐 대표단은 창원시 자원순환시설을 방문해 소각, 재활용, 음식물, 음폐수 바이오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 창원시는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
		□ 권혁수 환동해산업연구원장 "수소산업 한 획 그어 지역경제 성장 도모"(2024-12-02) - 경북 울진의 환동해산업연구원 10대 원장에 권혁수 전 (사)에너지산업진흥원 이사장이 취임. 권 원장은 전북대학교 자원공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경영학 석사, 대전대학교 경영학 박사를 취득한 에너지산업계 전문가 - 환동해산업연구원은 울진군의 해양에너지 산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새로운 성장 산업을 제시하고 지역과 공존 전략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 - 권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가 수소산업의 한 획을 그어 지역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지역과의 공존 전략 기반 구축을 강조
		□ 포항시 이차전지·수소·바이오 등 3대 신산업 육성 박차(2024-12-03) - 포항시가 이차전지·수소·바이오투대 먹거리로 육성하며 산업 다변화를 추진. 지난해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이어 올해 6월 바이오 특화단지, 11월 수소 특화단지에 연이어 지정되며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서 성과를 거둠 -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와 국립 첨단전략산업진흥원 건립을 추진하며, 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특화단지와 연계한 혁신적인 바이오메디컬 시티 조성을 추진 - 수소 분야는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지방	AI·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통해 포항을 AI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나갈 계획 □ "더는 못 참겠다" 생존 위협하는 수소생산기지 증설 규탄(2024-12-04) -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냉열사업부지에 위치한 수소생산기지의 증설 계획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 주민들은 평택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되는 증설 공사에 대해 항의 - 현재 가동 중인 수소공장은 수소 7톤 생산 시 이산화탄소 70톤을 배출하는 대기오염원이며, 2톤 추가 생산을 위한 증설은 건강권과 환경권 침해를 더욱 심각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 - 주민들은 정장선 시장이 공약했던 스마트팜과 남양호 주변 요양병원, 수변테크 등 주민 지원사업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수소생산기지 증설 중단과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 □ 광주 동구, '수소도시 마스터플랜' 중간 보고회 개최(2024-12-03) - 광주 동구가 850억 원 규모의 국토교통부 주관 '수소도시 조성 사업'의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 지난해 9월 사업 선정 이후 수소에너지 활용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방안을 논의 - 주요 내용으로는 수소연료전지(5.28MW), 수소충전소 및 그린수소 생산시설 등 인프라 개발 방안, 수소 테마파크, 수소 에너지 홍보관, 스마트 팜, 에너지 놀이터 등 교육 및 홍보 공간 마련 계획이 포함 - 동구는 지난 8월 마스터플랜 용역에 착수했으며, 향후 연료전지 및 수소 충전소 구축 방안, 열 공급 연계 방안 등을 검토하고 취합한 후 내년 2월 마스터플랜을 확정할 계획
UAM	중앙	- (해당 없음)
	지방	- (해당 없음)
우주	중앙	□ 방사청, 한·프 국방우주 분야 공동워크숍 개최 '협력 강화'(2024-11-28) - 방위사업청과 프랑스 병기본부가 이틀간 방위사업청 과천청사에서 국방우주 분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워크숍을 개최. 양국은 국방우주 분야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공감 - 첫째 날에는 차세대 군 통신위성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프랑스 측은 다수의 통신위성 운용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 둘째 날에는 감시정찰·통신·항법위성 등 우주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 방사청은 향후 병기본부와의 공동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우주 기관들과 기술·정책·전략 분야의 협력을 추진할 예정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우주	지방	□ 사천 상공인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통과를"(2024-11-28) - 사천상공회의소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상공인 플로깅 걷기 대회를 개최. 황태부 회장을 비롯한 상공인 70여명과 박동식 시장, 김규현 시의회 의장 등이 참가해 특별법 통과를 기원 - 참가자들은 사천케이블카 자연휴양림에서 각산전망대까지 왕복 4.4km 구간을 걸으며 환경보호활동도 함께 진행. 지역의 미래가 걸린 특별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환경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도 실천 - 서천호 의원이 지난 5월 13일 발의한 특별법은 우주항공청 소재지 일대를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세제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 국토위 소관위에 계류 중
		□ 거센 풍랑에... 제주 우주발사체 해상 발사장 좌초(2024-11-28) -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의 우주발사체 발사용 바지선이 제주도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좌초 - 발사 지점에서 정박된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어 왔으나 강한 풍랑으로 인해 무동력 바지선이 이탈하는 사고 발생 - 해경과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들은 기상이 호전되면 예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 사고는 국내 우주기업의 해상 발사 시설 운영에서 발생한 첫 안전사고로, 향후 해상 발사장 운영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제주도, 민간 주도 우주산업 발전 정책 발표(2024-12-02) - 제주연구원이 '제주 민간 주도 우주산업 발전 정책 연구'를 통해 도민 인식 조사 결과와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 제주도는 위성 정보 송수신과 발사 방위각에서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보유 - 현재 한화시스템이 제주에 국내 최대의 위성 조립·생산·시험 시설을 건설 중이며,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는 제주 해상에서 발사 시험을 추진 중. 제주도는 초소형 위성, 친환경 소형 발사체, 우주산업-관광 융합을 핵심으로 한 발전 전략 추진 - 도민 설문조사 결과 64.45%가 우주산업 육성 계획에 긍정적이며 부정 의견은 6.27%로 나타남. 연구진은 민간 기업 중심의 우주산업 추진과 초기 정착 지원, 관광 산업과의 동반 발전을 제안
		□ 제주 우주산업 미래 먹거리로 키우는데...도민들은 "잘 몰라요"(2024-12-02) - 제주연구원의 도민 설문조사 결과, 제주도의 우주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 62.80%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우주산업 발전에 대한 관심도는 66.21%가 긍정적으로 응답 - 우주산업 육성 계획에 대한 긍정 의견은 64.45%, 부정 의견은 6.27%로 나타났으며, 중립 의견도 29.28%를 차지. 도민 71.45%는 첨단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 부정 응답 사유로는 도내 우주산업 발전 가능성이 낮을 것 같다는 의견이 42.80%로 가장 많았고, 자연환경 훼손 우려 21.43%, 군사 목적 활용 우려 14.29% 등이 뒤를 이음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국가기관	□ 반응속도 16.4배 · 효율 2배... 수소 빠르게 만들어 쓴다(2024-11-28) - 한국화학연구원 연구팀이 전기화를 통한 새로운 수소 추출 기술을 개발해 기존 대비 16.4배 빠른 반응 속도와 2배 이상의 수소 추출 효율을 달성. 전자기 유도 촉매 가열 시스템(ECIHS)을 도입해 촉매를 직접 가열함으로써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반응 속도를 크게 향상 - 특수 소재인 티타늄 실리콘 카바이드를 벌집 모양의 촉매 지지체로 활용하고, 백금에 황을 첨가한 촉매를 사용해 효율적인 수소 추출을 가능하게 함. 200 시간 이상의 안정적인 수소 생산을 통해 기술의 장기 안정성도 입증 - 모형 수소차 실험을 통해 3초 내 수소 발생, 11.34초 만에 수소차 운행이 가능함을 확인해 온보드 수소 모빌리티로의 직접 적용 가능성을 입증. 이 연구는 에너지 분야 권위지인 '줄(Joule)'에 게재되어 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
		□ 특허청, 청정수소 연구현장 목소리 청취(2024-12-02) - 특허청이 한국화학연구원을 방문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수소 기술의 연구개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청정수소 분야의 최신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특허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 한국화학연구원은 탄화수소, 물, 암모니아 등으로부터 청정수소를 생산, 저장, 운송하는 기술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청정수소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 - 간담회에서는 청정수소 제조 분야의 최신 기술 현황, 특허출원 동향 등을 공유하고, 심사 실무에 대한 논의도 진행. 연구개발 성과를 특허권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도 교환
		□ '국제수소전기에너지전사회' 개최..."경남 업체와 수소산업 협력"(2024-11-28) - 창원컨벤션센터에서 '2024 국제 수소전기에너지 전사회'와 '2024 창원 수소에너지 글로벌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개막.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주최로 경남을 수소산업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B2B 전시회로 탈바꿈 - 1:1 수출 상담회에서는 말레이시아, 대만을 비롯한 9개국이 참가하여 전시회 참가 기업 및 지역 단체 기관들과 경남지역 수소산업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 - 특허청, 에너지경제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주한콜롬비아대사관이 참가하여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지방기관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외 수소경제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28일에는 칠레 대사관에서 칠레의 그린 수소산업에 대한 세미나도 진행될 예정
		□ 에이원 '수소저장·탄소포집' 기술로 탄소중립 앞당긴다(2024-11-28)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인증한 유망 에너지기업 에이원이 KAIST와 함께 '극저온 액체수소 저장 탱크'를 개발. 18㎡ 크기의 탱크를 연말까지 제작 완료하고 내년 경남 김해시 극저온기계실증연구센터에서 테스트 예정 - 개발된 탱크는 네모난 모양으로 설계되어 공간 효율이 우수하며, 수소충전소, 버스, 트럭, 열차, 선박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 액체 상태 수소는 10bar 미만의 저압으로 저장되어 안전성이 높고 저장 효율도 우수 - 에이원은 공기분리기술을 강점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 포항 영일만에서 국내 최초, 세계 3번째로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 CCS 기술의 전 과정을 경험한 국내 유일한 중소기업으로 주목
UAM	국가기관	□ KTC, 국내 첫 UAM 충전인프라 국제 표준 세미나 개최...2030년 상용화 대응 본격화(2024-12-02)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UAM 충전인프라 국제표준 세미나'를 개최 - 2030년 UAM 상용화를 앞두고 핵심 설비인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내 최초의 전문가 회의 - 기체·배터리 시스템·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관계사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버티포트 인프라로써의 충전시스템에 대한 기술표준화 방안을 중점 논의 - KTC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환경에 알맞은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이 UAM 시장에서 독자적인 충전기술로 표준을 주도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
	지방기관	- (해당 없음)
우주	국가기관	□ 태백 장성광업소 폐광도 활용한 우주산업 기반시설 조성 제안(2024-11-28) - 태백 장성광업소의 900여m 수직갱을 활용한 드롭타워 조성이 제안됨. 이는 우주 미세중력 환경을 모사한 실험 시설과 연구시설 단지를 설치하여 우주의학 등을 연구하는 60억여원 규모의 사업 - 용역사는 제1수갱 주변 운반갱도를 활용한 압축공기 에너지저장사업,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시설과 메탄가스 포집 시설인 태백 ECBM 조성사업, 연구용 스마트팜 조성사업 등도 함께 제안 - 이번 용역은 장성광업소 폐광 이후 갱도를 단순 수몰하지 않고 지역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산업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 등과 협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
		□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일경험 프로젝트 항공MRO트랙 2기 운영(2024-11-28)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우주	지방기관	- 항공우주산업융합원이 인하대 항공우주융합캠퍼스에서 인천국제공항 일경험 프로젝트 항공 MRO 트랙 2기 과정을 시작. 이는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의 일환 - 프로그램은 사전직무교육과 일경험으로 구성되며, 참가자들은 A320 및 B737 시뮬레이터 체험, 항공 디지털 트윈 교육, 항공기체실습 등을 이수한 후 에어 인천에서 현장 실습을 진행 - 이 프로그램은 항공 산업 성장에 따른 항공정비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청년들에게 항공정비 분야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 창출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KAI, '2024 항공우주논문상 시상식'...총 9팀 수상(2024-11-29)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 공군호텔에서 '2024 항공우주논문상' 시상식을 개최. 2003년부터 시작된 이 상은 항공우주 분야 연구 활성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개최되며, 올해부터는 우주항공청도 시상에 참여 -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다목적 수송기 등 KAI의 미래 6대 사업과 연계된 정책, 경영, 요소 기술을 주제로 총 9팀이 수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총 29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되고 KAI 채용전형 서류전형 면제 특전도 제공 - 부산대의 성부경 학생(우주항공청장상)과 윤도형 학생(KAI CEO상)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최우수상 논문의 지도 교수에게는 특별상이 수여됨
		□ 우주항공청, "KPS 위성 1호기 발사 연기, 사실과 달라"(2024-12-01) - 우주항공청이 KPS 예비설계검토회의(PDR)에서 설계 실패 판정이 내려졌다는 주장과 발사 일정이 14개월 연기됐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 지난 10월 KPS 탑재체와 지상 시스템에 대해 PDR을 진행했으며, 탑재체에 대해서는 기술적 복잡도를 감안해 일부 사항을 보완할 예정일 뿐 설계 실패 판정은 없었다고 밝힘 - 현재 KPS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면밀한 점검을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세부 추진 일정은 점점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위성항법 소위원회 등을 통해 확정할 예정
		□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부품 NC 제조공정 지능화 협의회 개최(2024-12-02) - 경남테크노파크가 '항공우주부품 NC 제조 공정 지능화 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교류회 및 협의회를 개최. 워킹그룹별 전문가와 수행 기관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해 NC 제조 공정 지능화를 위한 논의 진행 -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지원으로 3년간(2023년 4월~2025년 12월) 진행되는 이 사업은 NC 제조 공정 고도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장비 성능 개선, 기술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 - 올해는 5축 고속 가공기 등 가공 특화 장비 4종 19대를 구축하고 7개 기업의 실증 및 기술지도를 지원해 사업화 매출액 22억 8200만원, 신규 고용 8명의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성과를 달성. 35명의 가공 분야 전문 인력도 양성

□ 민간 및 기타(포럼, 세미나, 토론회 등) 동향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민간기업	□ 롯데월드타워 20년간 수소발전 전기 판매(2024-11-28) - 롯데월드타워가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기를 연간 5995MWh씩 판매하기 시작해 국내 상업용 건물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발전 전기 판매를 실현. 이는 21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하며, 2043년까지 연간 16억 원의 수입이 예상 - 총 400kW 규모의 수소연료발전 설비 2기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며, 이는 롯데월드타워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수익 창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일환. 현재 29MW 규모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용중 - 지난해 롯데월드타워 전체 전력 사용량의 18.4%를 자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충당했으며, 향후 수소연료전지 외에도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늘려 잉여 전력의 외부 판매를 확대할 계획
		□ 동서발전, 동해발전본부 현장 방문...수소생산기지 구축 총력(2024-11-28) - 한국동서발전이 동해발전본부를 방문하여 수소경제 시대를 대비한 미래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 동해발전본부는 2020년부터 정부의 그린수소 전주기 기술 개발 실증과제로 부하변동형 수전해 수소생산 기술 개발을 완료 - 올해부터는 고온수전해 수소생산, 고안전 청정수소 저장, 비금속 수소배관 접속재 및 수소센서 개발 등 신규과제 4건을 수행 중이며, 강원도, 동해시, 대우건설과 함께 수전해 산업 기술력 강화를 위한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도 추진 -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발전설비관리와 함께 무탄소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최전선 사업소로서 수소경제를 이끌 선도적인 기술개발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
		□ 범한퓨얼셀, 말레이시아 수소기반도시 개발 파트너 MOU 체결(2024-11-28) - 범한퓨얼셀과 말레이시아 스마트시티 협회(MSCA)가 수신라호텔에서 양국의 수소기반도시 개발을 위한 협력 강화를 위해 MOU를 체결.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의 한국 공식 방문을 계기로 성사된 이번 협약은 수소기술을 기반으로 한 첫 공식 파트너십 - MSCA는 수소 충전 인프라 및 수소버스 등 수소모빌리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9월 범한퓨얼셀 본사와 창원 가포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수소 충전시스템을 시찰. 특히 창원 가포 수소충전소는 국내 최초 국산 수소압축기 기반의 수소 버스용 대용량 충전소로 주목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민간기업	- 양측은 수소기반도시 개발, 수소에너지 사이클 시스템(HECS) 및 수소 활용 인프라, 수소충전소 등 수소 충전 인프라 R&D 실증 프로젝트 등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 이를 통해 범한퓨얼셀의 기술이 세계로 확장하는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
		□ 디카본, 수소전문기업 지정으로 수소경제 선도(2024-12-02) - 폐플라스틱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수소에너지 기업 디카본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소 생산 부문의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 수소법에 따라 수소 사업 관련 매출액 비중 또는 연구개발 투자금액 비중이 요건을 만족하고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과 - 수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106개 기업 중 하나로서 향후 최대 1억 50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정부 국책과제 선정 시 가산점과 세제 혜택도 제공받을 예정. 또한 전문가의 맞춤형 기술·경영 컨설팅도 지원 - 디카본은 이번 선정을 통한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R&D 역량 강화에 힘쓸 예정이며, 자원 순환과 친환경 에너지 정책 실현을 통해 탄소중립과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계획
		□ 엘유프로, 태국 마코퍼레이션과 45억 달러 규모 그린수소암모니아 판매계약 체결(2024-12-02) - 글로벌 그린에너지 자원 생산기업 엘유프로가 태국 마코퍼레이션과 10년 동안 45억 달러(약 6조원) 규모의 그린암모니아 500만t 판매공급 계약을 체결. 태국 마코퍼레이션은 태국과 동남아, 유럽 지역에서 에너지 자원을 유통하는 글로벌 기업 - 엘유프로는 오만 현지에 '엘유프로-오만'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오만의 풍부한 일조량을 이용한 2GW급 재생 에너지 단지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활용해 연 100만t의 그린수소암모니아를 중동 오만 두콥에서 생산할 계획 - 이번 판매계약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친환경 에너지 수요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엘유프로는 그린에너지 자원 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
수소	민간기업	□ 높은 도입단가 걸림돌...청정수소발전, 쉽지 않은 '첫발'(2024-12-02) - 청정수소발전 의무화 제도(CHPS)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정부가 계획한 연 6500GWh 전력 생산 목표의 11.5%인 750GWh만 공급하기로 결정 - 남부발전의 삼척빛드림본부가 암모니아를 혼소해 2028년부터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나, 다른 발전사들은 높은 도입 가격으로 인해 입찰에서 탈락. 청정 수소와 암모니아의 높은 시장 가격이 주요 원인 - 업계에서는 청정 연료의 가격과 정부 정책이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내년 입찰에서도 부진한 성과가 예상되며, CHPS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대학교	- (해당 없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민주당, '에너지 안보' 행기기 나섰다...대전환성장포럼, LNG·수소 공공대책 토론회 개최(2024-11-28) - 더불어민주당이 에너지 시장의 불완전성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선택: LNG 직수입 문제와 수소경제로의 전환에서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 토론회에서는 수소경제의 전망과 수소 산업의 밸류체인, 공공주도의 수소 배관망 사업과 인수기지의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방안을 논의. 공기업의 신규사업 투자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언급 - LNG 직수입으로 인한 가스공사 도입 비용 증가와 요금 인상 이슈에 대한 분석도 진행. 특히 LNG 직수입사의 전략적 행동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발전량·요금 등을 추적한 결과를 발표하며 바람직한 LNG 직수입 정책을 제언할 예정
		□ 디카본, '2024 한국-콜롬비아 수소 협력 웨비나' 성료(2024-11-28) - 탄소중립 수소경제 선도기업 디카본이 '2024 한국-콜롬비아 수소 협력 웨비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폐플라스틱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에너지 기업인 디카본은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을 통해 입지를 강화 - 이번 웨비나는 한국과 콜롬비아 간의 수소 사업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 디카본과 현대자동차가 한국 대표로 참가해 기술력과 비전을 공유 - 디카본은 수소 생산, 저장, 운송 및 활용 분야에서 특히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수소 생산과 수소 연료전지 공급 등 혁신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수소 전문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글로벌 수소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탄소중립 확보"...한수원, 원자력 청정수소 연구 성과 공유(2024-11-28) -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한국전력기술, 두산에너지빌리티, 미래기존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포스코홀딩스와 '원자력 청정수소 기반연구 성과공유 워크숍'을 개최 - 2022년부터 2년 간 수행한 원자력 청정수소 기반연구의 성과를 공유하며, 원전과 수소생산 플랜트 최적 연계방안, 청정수소 생산·활용을 위한 안전 및 규제 요건, 법·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 - 한수원은 12개 기관과 협력해 '원전 전력 연계 저온 수전해 수소 생산 및 운영 실증' 사업을 4년간 진행 중이며, 총 829억 원(정부출연금 29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을 통해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를 목표
		□ '그린수소' 길 열리나... "원전 밀집 지역 울진 산단 활용해야"(2024-11-29) - 국회의원회관에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성공적 조성 위한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가 개최. 박형수 의원은 원전의 전기가 직접 수소산단에 공급될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수 있는 송배전망 구축과 값싼 전기 공급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 - 원자력 활용 대용량 수소생산 기지를 민간 주도로 구축하여 국가 수소경제 달성에 기여하는 거점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 특히 삼척-울진-영덕-포항-울산 간 동해안 수소경제 벨트 조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 기대 - 전력수요 2GW 규모 산단 조성 시 345kV급 설비 신설이 필요하며, 원전과 산단 내 변전소 간 연계 송전선로 구성이 필요. 수소산업 유지를 위한 비용 및 수요처 확보도 주요 과제로 대두
UAM	민간기업	- (해당 없음)
	대학교	□ 김포시, '콤팩트시티·UAM' 갖춘 과학고 최적지...미래인재육성 준비된 인프라 강점(2024-12-01) - 김포시가 연세대 SW중심대학사업단과 함께 AI·SW 자율교과목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되어 국비 100억원을 확보.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조성으로 11만6000가구 규모의 수도권 서부 거점도시로 발전 예정 - 2026년 6월까지 용역을 통해 개발구상안, 자족기능 특화방안, 광역교통체계(MaaS, 자율주행차, UAM 등), 철도노선 최적화 방안 등을 집중 검토. 6조원대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도 추진 중 - UAM 선도도시로서 지자체 최초로 UAM 조례를 제정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미래형 첨단 융합기술 특화 및 우수 교과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교육도시로서의 위상도 강화할 계획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현실이 된 하늘 나는 자동차...UAM 시대가 온다 [모빌리티](2024-12-03) - UAM은 300~600m 저고도 상공을 오가며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새로운 교통 체계로, 헬리콥터보다 100배 조용하고 친환경적. 최고 시속 320km로 서울-인천 구간을 30분 안팎으로 주파 가능 - UAM 비행체는 멀티로터형, 리프트앤드크루즈, 틸트형 등 3종류로 구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에 참여한 드림팀이 도입한 조비 에비에이션의 'S4'는 틸트형 eVTOL로 조종사 1명에 승객 4명 탑승 가능 - 비행체 이착륙과 승객 탑승, 충전이 이루어지는 '버티포트'와 운항 관리를 위한 'UATM'도 UAM 생태계의 핵심 요소로, 교통·물류뿐 아니라 의료·택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
우주	민간기업	□ 김병근 엠앤씨솔루션 대표 "우주항공 및 민수 사업 확장 통해 성장 지속할 것" (2024-11-29) - 김병근 엠앤씨솔루션 대표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기업의 핵심 경쟁력과 성장 전략을 발표. 1974년 설립 이래 50년간 방산용 모션 컨트롤 및 정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우주		밀 제어 기술을 전문으로 연구·개발해온 기업 -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8.6% 증가한 1885억원, 영업이익도 101.2% 성장. 300만주를 공모하며 공모 예정가는 8만원9만3300원으로 총 공모금액 2400억원2800억원 규모 - 조달한 자금은 2공장 부지 매입 및 건설, R&D 센터 확충, 노후 설비 교체 등 시설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며,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위성 탑재 장비와 발사체 구동 장치 개발 등 정부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
	대학교	□ 경상국립대, 우주항공 강국 영국·프랑스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2024-11-29) - 경상국립대가 유럽의 우주항공·방산 분야 우수 대학들을 방문해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학문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 이를 통해 재학생들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와 우수 외국인 연구인력 유치 계획 - 영국 크랜필드대학교와 복수박사학위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프랑스 인사틀루즈와는 복수석사학위 협정을 체결. 콩피에뉴공과대학과도 학·석사 연계과정, 복수석·박사 학위과정 등을 논의 - 이번 유럽 방문을 통해 우주항공·방산 분야의 세계적 명문대학과 특성화 분야를 강화하고, 우수 연구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 글로벌대학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
	대학교	□ 한국항공대, 겨울방학 항공우주캠프 참가자 모집(2024-12-03) - 한국항공대학교가 13년째 진행하는 항공우주캠프가 초·중·고교생 대상 참가자를 모집. 조종, 관제, 정비와 같은 항공산업의 주요 진로를 알아보고 SW·AI 교육을 융합한 코딩 드론까지 배울 수 있는 체험형 캠프로 운영 -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항공새싹' 캠프는 2박 3일간 과학체험활동 중심으로, 중학생 대상 '에어브릿지' 캠프는 3박 4일간 특강과 실습을, 고등학생 대상 '글로벌 항공리더' 캠프는 4박 5일간 심화 실습과 필드트립을 진행 - 고등학생 캠프 수료 시 한국항공대 입학 후 1학점을 선이수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입학사정관의 입시설명회도 진행.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오후 6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 □ 엠앤씨솔루션 코스피 출사표..."방산·우주항공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 도약할 것"(2024-11-29) - 엠앤씨솔루션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포탑 구동 시스템, 천무·천궁-II 등 유도무기의 발사대 구동 장치, KF-21, 수리온 등 항공기의 유압 펌프와 연료 조절 장치 등을 주력 제품으로 보유 - 올해 3분기 기준 수출액은 986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52.3%를 차지하며 내수 매출을 초과. 향후 해외 방산 업체 대상 직수출 및 항공 체계 사업 진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내용
우주		- 2030년까지 항공 차세대 엔진과 중형 전술 수송기 개발을 통해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민수 사업에서는 산업기계용 서보밸브 국산화, 데이터센터 냉각 시스템 개발 등 신사업 분야 경쟁력 강화에 주력
	해외	□ 美·中 기술패권 '최후의 전장'은 우주 태양광과 핵융합(2024-11-29) - 태재미래전략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초당파 싱크탱크 SCSP는 우주 태양광과 핵융합 발전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중착점이 될 것으로 분석. 두 기술은 AI를 지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무한 청정 에너지원으로 주목 - 우주 태양광은 우주에서 태양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해 지구로 무선 전송하는 기술로, 지구 태양광 대비 20배 많은 발전량 달성 가능. 미국은 2030년까지 50kW, 2050년까지 35GW 발전을 목표로 설정 - SCSP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를 미국의 미래가 걸린 시기로 보고, 이 기간 우주 태양광과 핵융합 등 미래 청정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하면 중국에 기술 패권을 뺏길 것이라고 경고
	기타	□ 中 항공우주 라인도 시진핑 눈 밖에... 고위급 '멸족' 수준 속칭(2024-11-30) - 중국 군부와 항공우주 분야에서 연이은 고위급 인사 낙마 발생. 주즈송 상하이시 푸둥신구 서기, 등권 국방부장, 마오화 중앙군사위 위원이 기율 위반 및 부패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됨 - 특히 향천과기그룹 라인의 몰락이 주목됨. 상하이우주항공기술연구원의 전·현직 원장 3명이 넉 달 사이 모두 쫓겨나고, 향천과기그룹의 고위 인사들도 조사 대상이 되는 등 '멸족' 수준의 속칭이 진행 - 이는 장쩌민 전 국가주석 라인의 잔재 청산으로 해석되며, 중국 항공우주 관련 기밀 유출 우려도 제기됨. 군부와 항공우주 등 핵심 기술 분야의 기강 잡기가 강화되는 추세
		□ 우주안보학회, '우주안보 정책과 기술, 그리고 협력' 학술대회 개최 (2024-11-29) - 한국우주안보학회가 '우주안보 정책과 기술, 그리고 협력'을 주제로 2024년도 추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 12개 전략과제 발표를 통해 '안보로 보는 우주'와 '우주로 보는 안보'의 방안을 모색 - 연세대학교 항공우주전략연구원과 MOU를 체결하고 우주안보 연구개발 협력, 공동연구와 인력 교류 등을 확대하기로 합의. 우주가 군사적 안보적으로 중요한 공간이 되었음을 강조 - 국가정보원 윤오준 3차장은 우주안보 수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역량 결집과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법·정책과 핵심기술 연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